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기초자료
19-13

2019년 8월 19일

지속가능금융 정책 현황과 시사점: EU 사례를 중심으로

송지혜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개발협력팀 전문연구원
(jhsong@kiep.go.kr, Tel: 044-414-1074)

KIEP 1990-20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지속가능금융 정책 현황과 시사점: EU 사례를 중심으로

요약

▶ [SDGs와 기업의 역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로 대표되는 새로운 개발체계하에서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의무를 갖게 되어, 과거 경제적 이윤추구에 한정되었던 기업의 역할이 사회·환경적 지속가능성 추구로 확대됨.

- 다수 국가에서는 기업의 지속가능발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2017년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였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음.
- 본고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속가능금융 활동으로 민간의 지속가능발전 어젠다를 추진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지속가능금융 추진 배경·현황] EU는 EU 조약에 근거하여 경제·사회·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며 파리협정과 지속가능발전목표로 대표되는 국제사회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지속가능금융 추진 결정

※ 지속가능금융: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ESG)를 고려하는 금융·투자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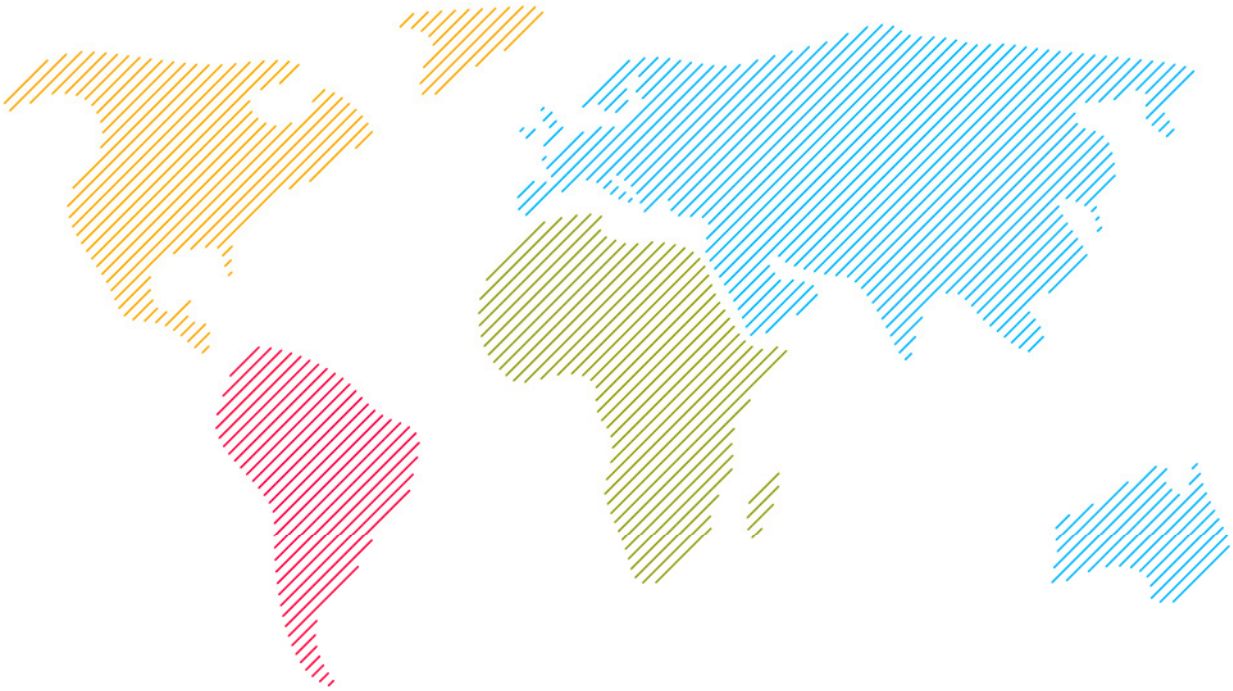
- 2016년 정책문서에서 지속가능금융을 추진하여 SDGs에 기여하고자 하는 EU의 계획을 공개하고, 작업반을 개설하여 이행방안을 검토; 2018년 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 정책문서 발표; 행동계획을 토대로 3건의 규정 입법 절차 진행 중

▶ [지속가능금융 정책 분야]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환경 구축 활동', 금융시장 이해당사자가 금융·투자 활동 추진 시 환경·사회 리스크를 고려하도록 하는 '금융·투자 리스크 관리 개선 활동', 그리고 기업의 재무·경제 활동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시장의 장기적 시각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시장 투명성 개선 활동'으로 구분 가능

- [법·제도적 기반환경 구축]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활동으로, 지속가능성 개념을 정의·분류하는 활동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 상품(활동) 표준과 지속가능 투자 벤치마크 개발, 자체 인프라 활동에서 지속가능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지속가능성 요소를 포함하도록 투자 지침을 개정하는 활동 추진 예정
- [금융 리스크 관리 개선] 환경·사회 관련 리스크가 장기적으로 유럽 경제와 금융제도에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환경·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금융시장 제도를 구축하는 활동
- [금융시장 투명성 개선] 기업에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요구하여 기업 공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본시장·투자에 장기적인 시각을 제고하는 활동이 포함됨.

▶ [평가 및 시사점] 국제적으로 금융·투자 활동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화되고 지속가능금융으로 경제 활동의 패러다임 변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 또한 민간의 SDGs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를 검토·마련하여 국제 금융의 흐름에 부합하는 정책적 신호를 제공할 필요

- [평가] 국민연금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우리나라 또한 기업의 ESG 지속가능성 추구에 관심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관심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한정되어 있으며 기업의 이행실적 또한 미흡한 초기 발달 단계임.
- [시사점] 지속가능금융을 추구하기 위한 선진국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해당 지역에서 우리 기업이 대응하는 데에 제도적 기반 제공 필요; EU의 사례를 참고하여 기반환경 제도와 리스크 대응, 투명성 제고 등, 지속가능금융의 전방위에서 균형적인 정책방안 모색 필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금융 제도 확산과 이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달성 기여가 바람직



차 례

1. 배경: SDGs와 기업의 역할

2. EU의 지속가능금융 추진 배경
   가. 추진 근거
   나. 추진 경과

3. EU 지속가능금융 정책 분야
   가. 제도적 기반환경 구축 활동
   나. 금융 리스크 관리 개선 활동
   다. 시장 관행 개선 활동

4. 평가 및 시사점

참고문헌

1. 배경: SDGs와 기업의 역할

■ 2015년 UN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기존의 밀레니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와 달리 선진국과 개도국의 모든 구성원에게 지속가능한 경제·사회·환경 활동을 촉구함.

- 2000년에 채택된 MDGs가 개도국만을 대상으로 하였던 것과 달리 SDGs는 세계 193개 선진국과 개도국의 공공·민간·시민사회의 모든 개발 활동 참여자를 이행주체로 설정함에 따라, 과거 참여의무를 갖지 않았던 민간 기업의 지속가능발전 참여가 요구됨.
- SDG 8(경제성장)과 SDG 9(지속가능 인프라), SDG 12(지속가능한 소비·생산)는 민간 기업을 이행주체로 설정하고 있으며, SDG 12의 세부목표 6번 '기업(특히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에 지속가능한 활동을 촉구하고 기업 공시에 지속가능성 정보 포함'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를 모니터링 지표로 설정

표 1. 밀레니엄개발목표(MDGs)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구분	MDGs	SDGs
목표·세부목표	8개 목표, 21개 세부목표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
대상분야	- 주로 사회와 경제 개발에 집중	- 다수가 범분야 목표로, 환경·사회·경제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
이행주체	**- 개발도상국 -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목표가 주를 이룸**	**- 선진국과 개도국(SDGs를 채택한 193개국) - 공공, 민간, 시민사회 참여**

자료: UN 홈페이지(https://www.un.org/millenniumgoals/,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sdgs, 검색일: 2019. 6. 3)를 토대로 저자 작성.

■ 전통적으로 기업의 역할은 이윤추구에 한정되어 왔으나, SDGs 달성을 위해 기업이 경제적 이윤뿐만 아니라 환경·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임.

- SDGs와 파리협정 체결을 계기로 주요국의 중앙은행, 감독기관은 민간의 환경·사회·윤리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행동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음.[1)]
- 기업에 재원을 제공하는 민간 ·기관투자자들 또한 단순한 경제이윤 확보에서 나아가 사회적 이익을 도모하는 투자를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ESG 투자, 사회책임 투자, 임팩트 투자 등 지속가능한 투자 활동을 확대 중임(글상자 1 참고).
-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에 재원 투자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에 지속가능성 요인, 즉 환경·사회·윤리적 요소를 고려할 때 지속가능발전 추구가 가능함.

1) NGFS(2018), *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NGFS) First Progress Report.*

글상자 1. 지속가능한 투자 활동

■ 지속가능 투자는 일반적으로 기업에 대한 투자 의사를 결정할 때 환경과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으로, ESG 투자, 사회책임 투자, 임팩트 투자 등이 포함됨.
- 투자 결정 시 경제적 수익성과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고려하는 가중치에서 차이를 나타냄.
- ESG 통합 투자(또는 ESG 투자)는 경제적 이윤추구를 주목적으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가 투자에 가져오는 영향을 고려하는 방식이며, 사회책임 투자는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되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투자 활동을 배제; 임팩트 투자는 사회적 이익 추구를 주목적으로 경제적 이윤 또한 고려

유형	목적		특징
	경제적 수익	사회적 기여	
ESG 통합 투자 (ESG Integrated Investment)	최대화	고려	주로 기관투자자들로 구성됨.
사회책임 투자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고려	고려	사회적으로 유해한 상품/사업에 투자를 금지(eg. 무기, 담배 등)
임팩트 투자 (Impact Investment)	고려	최대화	주로 개인투자자들이 참여

자료: EC Sustainable Finance 웹사이트(https://ec.europa.eu/info/business-economy-euro/banking-and-finance/sustainable-finance_en, 검색일: 2019. 6. 2); Think Advisors Inc(https://www.thinkadvisor.com/2016/11/08/investing-in-esg-sri-or-impact-funds-do-you-know-t/?slreturn=20190016025813, 검색일: 2019. 4. 20) 토대로 저자 작성.

■ **SDGs 달성을 위한 민간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다수 선진국과 개도국은 기업의 지속가능발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영국과 독일에서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활동, 즉 환경·사회·지배구조(ESG: 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정보 공시를 제도화하는 정책이 최근 크게 증가하였으며,[2]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2018년 6월 공개한 2018~2022 전략계획(안)에서 3개 전략목표 중 첫 번째로 '투자자들의 장기 이익 추구'를 제시하여 지속가능한 투자 활동 확대 의지를 표명[3]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환경·사회 등의 비재무적 요소를 기업의 수익률 평가에 반영하는 '통합 공시(Integrated Reporting)'의 선두주자로, 2009년부터 JSE(요하네스버그 증권시장)에 등록된 모든 기업에 통합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음.[4]
- 브라질 또한 자발적인 통합정보 공시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공식 제도화를 진행 중[5]

■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국민연금기금이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를 도입하여 기업의 지속가능한 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이 장려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도입 초기로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 및 투자자들의 참여 및 관심 또한 부진한 실정임.**

- 스튜어드십코드는 투자자가 투자 대상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규약으로, 기업의 재무현황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비재무적 정보 공시를 요구하여 투자에 반영하는 자발적인 제도임.[6]

2) 2017년 전 세계적으로 64개에 불과하였던 ESG 정보 공시 제도는 2018년 175개로 급증하였는데, 다수가 EU 지역에서 이루어진 증가임, MSCI(2019), "ESG Trends to Watch in 2019," p. 9.
3)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2018), "Strategic Plan Fiscal Years 2018-2022 - Draft for Comments."
4) Solomon, Jill. and Warren Maroun(2012), *Integrated Reporting: The Influence of King III on Social, Ethical and Environmental Reporting.*
5)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2018), *Breaking Through - IIRC Report 2017.*

-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사회·지배구조 중 지배구조 논의에 절대적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기업의 환경·사회 관련 지속가능성 추구에는 관심이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 본고는 적극적·체계적인 지속가능금융 활동을 추진하여 민간의 지속가능발전 어젠다 참여를 유도하는 유럽연합의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SDGs 추구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EU의 지속가능금융 추진 배경

가. 추진 근거

■ 유럽연합 조약(Treaties of the EU)은 지속가능성을 EU의 중요 가치로 설정하며, 유럽연합은 이에 따라 활동 전반에서 경제·사회·환경 지속가능성을 추구

- EU 조약은 유럽연합이 '역내시장을 설립하며, 이를 통해 유럽의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제1장 공통규정 3조 3항)'하고, '빈곤 근절을 목표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환경 발전을 촉진(제5장 EU의 외교적 작용 및 공동 대외·안보정책에 대한 특별규정 21조 2(d)항)'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

글상자 2. EU 조약의 지속가능성 추구 규정(원문)

Chapter 1. Common Provisions
Article 3
3. The Union shall establish an internal market. It shall work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Europe based on balanced economic growth and price stability, a highly competitive social market economy, aiming at full employment and social progress, and a high level of protection and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the environment. ...

Chapter 5. General Provisions on the Union's External Action
Article 21
2. The Union shall define and pursue common policies and actions, and shall work for a high degree of cooperation in all fields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order to:
(d) foster the sustainabl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with the primary aim of eradicating poverty;

자료: European Commission(2008), "Consolidated Versions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2008/C 115/01),"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Vol. 51. (9 May 2008).

■ 2014년 장 클로드 융커(Jean-Claude Juncker) EU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 위원장은, EU 조약에 제시된 지속가능발전 추구 책임에 따라 2015~20 중점 활동(Priority)에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강건한 에너지 연맹 추구'를 포함[7]

6) 한국기업지배구조원(2018),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해.

- 2015~20년 EU 집행위원회의 10개 중점 활동(Priority)에는 △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과 투자 확대, △ 디지털 단일시장 구축, △ 에너지와 기후변화 대응, △ 역내시장 내실화, △ 공정하고 안정적인 경제 및 통화 연합 구축, △ 세계화에 대응하는 균형적이고 적극적인 무역정책, △ 정의와 기본권 개선, △ 이민 대응, △ 유럽의 국제 역할 강화, △ 투명성과 책무성 측면에서 보다 민주적인 변화 도모가 포함됨.
-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효율 개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EU의 에너지 정책을 개선하여 파리협정과 지속가능한 발전 이행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함.

■ EU 집행위원회는 EU 조약에 담긴 가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달성과 도전과제 대응에 힘쓰며,[8] 2016년에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유럽의 미래: 지속가능성 추구를 위한 활동'이라는 제목의 정책문서를 발표하여 EU의 정책과 10개 중점 활동에 SDGs를 통합하고자 하는 계획을 공개하였음.

■ 2016년 정책문서에는 EU의 중점 활동 중 특히 에너지와 기후변화 대응(중점 활동 3), 역내시장 내실화(중점 활동 4) 활동이 SDGs와 밀접하며, "지속가능금융(sustainable finance)'을 통한 SDGs 추진이 유망하다"고 언급됨.[9]

- EU 집행위원회(EC)는 지속가능금융을 '환경과 사회, 그리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고려하는 금융·투자 활동'으로 정의[10]
- 지속가능금융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증진(SDG 8), 인프라 구축과 산업화 확대(SDG 9), 기후변화 대응(SDG 13), 해양·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SDG 14), 육상 생태계 등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SDG 15)을 비롯하여 다수의 SDGs와 밀접함.
- 뿐만 아니라 이 문서는 지속가능금융이 G20, 유럽과 국제 재무장관급 회의, 제도 및 산업 담당자들의 중요한 관심사로 부상하였으며, 공공 및 민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음.
- 지속가능금융의 중요성이 거듭 강조된 가운데, 정책문서는 지속가능금융 고위급 전문가 그룹(High-Leve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을 개설하여 EU 차원의 지속가능금융 추진전략 수립을 요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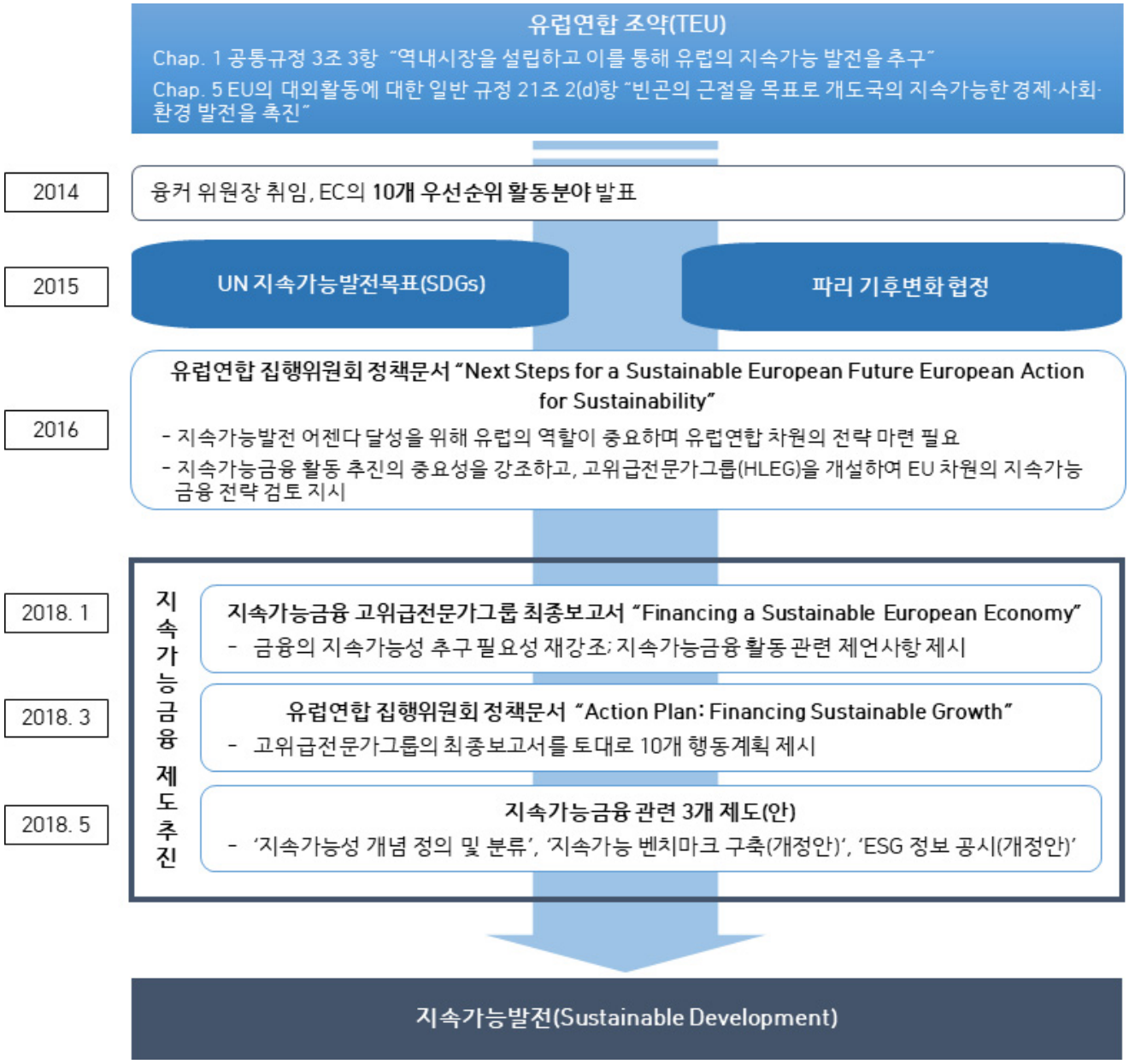
7) Jean-Claude Juncker(2014), "A New Start for Europe: My Agenda for Jobs, Growth, Fairness and Democratic Change - Political Guidelines for the next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commission/sites/beta-political/files/juncker-political-guidelines-speech_en.pdf(검색일일: 2019. 5. 7).

8) European Commission(2016),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Next steps for a sustainable European future European action for sustainability."

9) *Ibid.*, p. 10.

10) 원문: "Sustainable finance is the provision of finance to investments taking into account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considerations," EC Sustainable finance 웹사이트, https://ec.europa.eu/info/business-economy-euro/banking-and-finance/sustainable-finance_en, 접속일: 2019. 6. 2).

그림 1. EU의 지속가능금융 정책 현황



자료: 저자 작성.

나. 추진 경과

■ 2018년 1월, 지속가능금융 고위급전문가 그룹의 최종보고서[11]가 발표되어 지속가능금융을 확대하기 위한 EU 전략의 청사진 및 금융시장의 참여당사자별 제언사항이 제시됨.

11) EU High-Leve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2018), *Financing a Sustainable European Economy*, Final Report 2018 by the High-Leve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

- 유럽 주요 금융기업과 학계·민간단체·국제기구의 고위급 전문가가 참여한 상기 보고서는 지속가능금융이 경제·사회·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이며, 그간 단기성과 도출에 집중하였던 금융시장에 장기성과를 장려함으로써 금융·재정 위기와 같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
- 장기적인 수요 분야에 재원, 즉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추구할 수 있으며, 투자 의사결정에 비재무적 ESG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금융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
  - ㅇ 환경과 관련된 고려요소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환경 관련 위험(자연재해 등)을 제시하고, 사회적 고려요소로 평등, 포용성, 노동, 인적자본 개발 등을 언급
  - ㅇ 기후변화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므로 환경과 사회 요소는 서로 연계되어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기업의 지배구조(경영구조, 노사관계, 보수체계 등) 또한 기업의 의사결정 절차에서 사회·환경 요인을 포함하는 데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므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

- 지속가능금융과 관련된 개념의 정의 및 분류, 투자자 의무 강화, 기후변화 관련 공시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개선하는 유럽 차원의 개선 활동 등 8개 제언사항을 공개하고, 은행·보험사·자산운용사·연기금·신용평가기구·주식시장·투자은행 등 금융시장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별로 개선 활동을 제안

■ 2018년 3월, EU 집행위원회는 지속가능금융 고위급전문가 그룹의 보고서를 토대로 10개 행동계획과 구체적인 이행시기를 포함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재원 마련: 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 정책문서[12]를 공개함.

- 10개의 행동계획은 지속가능 활동에 대한 개념 정의 및 표준기준 마련, 지속가능성 벤치마크 지표 개발 등, 지속가능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초석 마련과 ESG 정보 공시를 확대하기 위한 EU 차원의 제도 입안 계획 등을 다루고 있음.
- 행동계획은 구체적인 행동 주체와 목표 이행시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2019년 6월 현재 이 계획에 따라 지속가능금융 정책 입안이 추진되고 있음.

표 2. EU 집행위원회의 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과 세부 내용

행동계획		이행시기
1	**지속가능 활동을 정의하기 위한 EU 체계 구축**	
1.1*	기후변화와 환경·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활동을 정의하는 EU 체계 수립 제안	2018년 2/4분기
1.2	'감축 활동'을 정의·분류하기 위한 전문가 보고서 작성	2019년 1/4분기
1.3	'적응 활동'과 '기타 환경관련 활동'을 정의·분류하기 위한 전문가 보고서 작성	2019년 2/4분기
2	**녹색금융상품 표준과 라벨 구축**	
2.1	녹색채권 표준에 대한 전문가 보고서 작성	2019년 2/4분기
2.2	투자설명서 규정(Prospectus Regulation)에 따라 녹색채권 발행 투자설명서 내용 도출	2019년 2/4분기
2.3	금융상품에 EU 에코라벨 적용 적합여부 평가	2018년 2/4분기~
3	**지속가능 사업에 투자 확대**	
3.1	지속가능 인프라 사업 확대를 포함하여 현재 추진 중인 자문권한 확대 활동을 보다 강화 EU와 협력국의 지속가능 투자에 효율성과 효과성 개선방안 확대	

12) European Commission(2018),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ropean Council, the Council, the European Central Bank,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Action Plan: Financing Sustainable Growth."

	행동계획	이행시기
4	**투자자문 활동에 지속가능성 통합**	
4.1*	금융상품지침(MiFID & ID) 집행위원회 위임법률을 개정하여 지속가능성 요소를 적합성 평가에 포함하도록 조정	2018년 2분기
4.2	유럽증권시장감독당국(ESMA) 적합성 평가에 지속가능성 조건을 포함하도록 요청	2018년 4분기
5	**지속가능성 벤치마크(지수·지표) 개발**	
5.1	벤치마크 방법론과 벤치마크 특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집행위원회 위임법률 채택	2018년 2분기
5.2*	저탄소 발행사(low-carbon issuer)로 이루어진 벤치마크 카테고리 설정 활동	2018년 2분기
5.3	저탄소 벤치마크 방법론과 구성을 위한 전문가 보고서 작성	2019년 2분기
6	**시장조사·평가에 지속가능성 통합방안 개선**	
6.1	지속가능성 요소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신용평가기관규정(Credit Rating Agency Regulation) 개정을 검토하고 진행상황 보고	2019년 3분기
6.2	ESMA에 ESG와 관련된 현황 조사와 정보공개 지침에 ESG를 포함하도록 지시	2019년 2분기
6.3	지속가능성 평가·조사와 관련된 심층 조사	2019년 2분기
7	**기관투자자와 자산운용사의 의무 규정**	
7.1*	기관투자자와 자산운용사의 지속가능성 의무(sustainability duties)를 규정하는 입법 제안 - 기관투자자와 자산운용사의 투자의사결정에 지속가능성 고려를 의무화하고, 지속가능성 리스크를 투자의사결정에 보다 투명하게 반영하기 위함임.	2018년 2분기
8	**건전성 감독기준(prudential requirements)에 지속가능성 통합**	
8.1	기후·환경 리스크를 기관별 리스크 관리 정책에 포함하고, 이를 자본요건 규정 및 지침(Capital Requirement Regulation and Directives)의 일부로 은행 자본요구 조건(capital requirements of banks)에 연동시키는 방안 검토(EU 지속가능성 개념 정의·분류 따름)	2018~2019년
8.2	유럽보험연금감독당국에 지속가능 투자 건전성 규칙이 보험사들에 미칠 영향을 검토 요청	2018년 3분기
9	**지속가능성 공시 및 회계 규정(accounting rule-making) 강화**	
9.1	공공 공시 제도와 관련 EU 정책(legislation)의 적합성을 평가 및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입법 활동 추진	2019년 2분기
9.2	기후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비재무적 정보 공시에 대한 지침 개정	2019년 2분기
9.3	유럽재무보고자문 그룹(EFRAG) 산하 유럽기업공시연구소(European Corporate Reporting Lab) 설치	2018년 3분기
9.4*	자산운용사와 기관투자자에게 투자의사결정 절차에서 지속가능성 요인을 어떻게 고려하는지 정보공개 제안(행동계획 7의 입법 제안과 연동)	2018년 3분기
9.5	지속가능 투자와 관련된 신규·개정 IFRS 표준의 효과를 예측하고 이를 자문보고서에 포함하도록 EFRAG에 요청	2018년 1분기
9.6	지분 또는 지분형 상품(equity and equity-type instruments) 장기투자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적합한 회계방식 검토를 EFRAG에 요청	2018년 2분기
9.7	IFRS 9가 장기투자에 미칠 영향 보고서 작성	2018년 4분기
10	**기업 거버넌스에 지속가능성 강화 및 자본시장의 단기적 성향 개선**	
10.1	지속가능금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의 거버넌스 개선 검토(assessment)	2019년 2분기
10.2	자본시장에서 기업에 가해지는 부적절한 단기적 압력에 대해 근거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럽감독당국(ESA)에 지시	2019년 1분기

주: * 이행에 앞서 영향평가 수행;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추진.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8),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ropean Council, the Council, the European Central Bank,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Action Plan: Financing Sustainable Growth" 토대로 저자 작성.

■ EU 집행위는 2018년 5월, 고위급전문가 보고서와 정책문서, 행동계획을 기반으로 하는 세 개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2019년 5월,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결정문(안)이 채택되어 위원회(Council) 논의 후 입법화할 전망[13]

- 지속가능투자 확대를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 규정(REGUL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 framework to facilitate sustainable investment)[14]
  - ㅇ 기후변화 감축 활동, 기후변화 적응 활동, 물·해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활용 또는 보호하는 활동, 순환경제와 폐기물 감소 및 재활용에 기여하는 활동, 공해 방지·관리 활동, 생태계 보호 활동 등을 '지속가능한 활동'으로 포함하며, 각 활동에 대한 적격요건, 환경 영향력 기술평가(technical screening) 방안, 단위 등을 포함함.
  - ㅇ EU 집행위원회에서 의장직을 담당하고 유럽 환경청(EEA), 유럽 감독기구, 유럽 투자은행과 투자기금 대표, 민간 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지속가능금융 플랫폼을 개설하여 환경 영향력 기술평가와 관련된 구체사항을 관리하도록 결정

- 저탄소·탄소영향 벤치마크 관련 규정(REGULATION amending Regulation (EU) 2016/1011 on low carbon benchmarks and positive carbon impact benchmarks)[15]
  - ㅇ 2016년 채택된 EU 벤치마크 규정(EU Regulation 2016/1011)에 저탄소 벤치마크를 추가하는 개정(안)으로, 네 개의 옵션 중 가장 포괄적인 벤치마크 설정 옵션이 채택될 경우 EU 차원의 저탄소 표준지표와 긍정 탄소영향 표준지표 설정 기준과 방법론이 도입될 예정
  - ㅇ 벤치마크 설정에는 기존의 Product Environment Footprint(PEF)와 Organization Environment Footpring(OEF) 등의 방법론을 활용하도록 함.

- 지속가능 투자·리스크 정보 공시 규정(REGULATION on disclosures relating to sustainable investments and sustainability risks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6/2341)[16]
  - ㅇ 녹색세탁(greenwashing) 행위 금지, 제도 중립성 확보, 공평한 경쟁 확보의 세 개 활동분야를 다룸.
  - ㅇ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ESG 리스크와 기회요인을 반영하고 이를 어떻게 투자자에게 공유할지에 대한 규칙을 제시; 이를 통해 투자자와 금융전문가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 활동 관련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17]

13) 입법 예정인 3개 법안은 규정(Regulation) 수준으로, 별도의 국내 입법절차 없이 EU의 모든 회원국 및 유럽연합 소속 당사자에게 효력이 발생하며, 제안된 규정이 입법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관련 지침(Directive) 또는 위임법률(Delegated Act) 등의 제도가 구축될 예정.

〈EU의 법적행위 구분〉

법적행위 유형	대상	효과
규정(Regulation)	모든 회원국 및 유럽연합에 소속된 자	규정 내 모든 법문 구속력 발생
지침(Directive)	모든 회원국 또는 특정 회원국	회원국 법제 내로 전환 요망; 예외적으로 구속력 발생
결정(Decision)	특정 회원국 또는 특정인	모든 법문 구속력 발생
권고(Recommendation)	모든 회원국 또는 특정 회원국; 예외적으로 기타 유럽연합 내 기관 또는 특정인	구속력 없음
의견(Opinion)	기타 유럽연합 내 기관, 특정 회원국; 또는 불특정 수범 대상자	구속력 없음

자료: 이재훈(2017), 『EU의 입법절차와 현황』, p. 24, 한국법제연구원을 토대로 저자 작성.

14) European Commission(2018),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Establishment of a Framework to Facilitate Sustainable Investment," 2018/0178(COD).

15) European Commission(2018),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Regulation (EU) 2016/1011 on Low Carbon Benchmarks and Positive Carbon Impact Benchmarks," 2018/0180(COD).

16) European Commission(2018),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Disclosures Relating to Sustainable Investments and Sustainability Risks and Amending Directive(EU) 2016/2341," 2018/0179(C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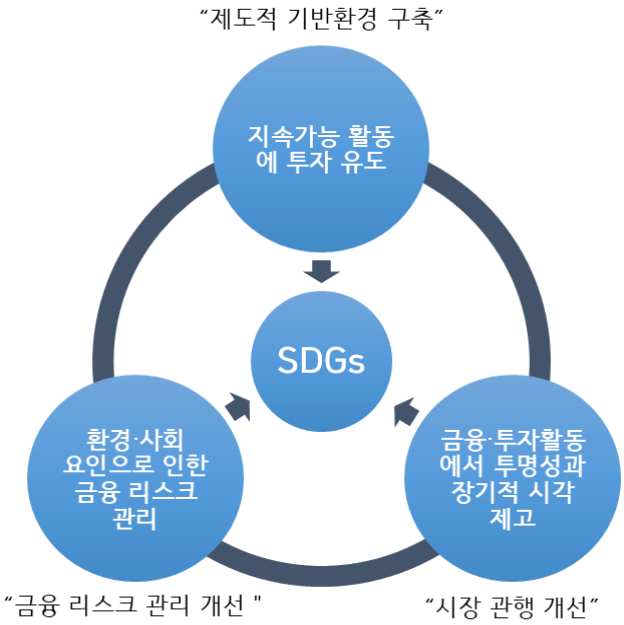
17) European Commission(2019), "Press Release. Capital Markets Union: Commission welcomes agreement on sustainable investment disclosure rules," Brussels, 7 March 2019,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9-1571_en.htm(검색일: 2019. 6. 13).

3. EU 지속가능금융 정책 분야

■ EU가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지속가능금융 정책은 그 목적에 따라 (i)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환경 구축 활동', (ii) 금융시장 이해당사자가 금융·투자 활동 추진 시 환경·사회 리스크를 고려하도록 하는 '금융·투자 리스크 관리 개선 활동', 그리고 (iii) 기업의 재무·경제 활동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시장에서 장기적 시각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시장 투명성 개선 활동'으로 구분 가능

- 제도적 기반환경 구축 활동은 자금 수요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며, 금융·투자 리스크 관리를 개선하는 활동은 자금 공급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음.
- 금융시장의 투명성 개선 활동은 자금의 수요와 공급 측면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재원 흐름의 전 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임.

그림 2. EU의 지속가능금융 정책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8),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ropean Council, the Council, the European Central Bank,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Action Plan: Financing Sustainable Growth" 토대로 저자 작성.

가. 제도적 기반환경 구축 활동

■ EU는 지속가능성 개념을 정의·분류하여 입법화하고 지속가능 상품(활동) 표준과 지속가능 투자 벤치마크를 개발하며, 자체적인 인프라 투자 활동에서 지속가능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지속가능성 요소를 포함하도록 투자 지침을 개정하여 환경·사회적으로 건전한 투자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환경을 구축하고자 함(표 3).

- 2018년 정책문서는 점진적, 단계적으로 기반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환경·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활동에 우호적인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여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을 담음.

표 3. 지속가능금융 기반환경 구축 활동

행동계획 #	활동 내용
1	'지속가능성' 및 '지속가능 활동' 정의*
2	지속가능금융 상품 및 활동 표준·라벨 개발
3	지속가능 인프라 투자 확대
4	금융 활동 지침에 지속가능성 요소 포함
5	지속가능성 벤치마크 개발*

주: * 2018년 5월 유럽위원회의 입법 제안, 2019년 5월 유럽의회의 승인 완료, 2019년 8월 현재 유럽이사회의 논의 진행 중.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8),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ropean Council, the Council, the European Central Bank,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Action Plan: Financing Sustainable Growth."

■ 제도적 기반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속가능금융 법·제도 구축에 근거가 되는 EU 공통의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 활동' 정의가 필요함.

- 이에 집행위원회는 2018년 5월, 지속가능한 활동 정의, 적격요건, 최소 기준선과 단위 등의 기준을 담은 지속가능 투자 체계 마련 제도(안)을 유럽 의회에 제출함.
- 더불어 지속가능금융 기술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기후변화 감축, 기후변화 적응, 그리고 기타 환경 활동의 의미와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함.

■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의·분류가 마련된 후에는, 녹색채권(Green Bond)과 같은 지속가능 금융상품 또는 활동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고 녹색 라벨을 개발하여 투자자들의 수요에 대응하고 시장의 성숙을 추구함.

- 최근 지속가능한 사업 활동 또는 상품에 투자하는 녹색채권 시장이 급격한 성장세임을 언급하고, 지속가능 사업 활동 또는 상품에 대한 EU 표준체계를 구축하여 녹색채권 확대 도모
- 동시에 지속가능 상품 라벨을 개발함으로써 기후변화·환경·사회 요소를 고려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수요에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며, 선행사례로 EU의 에코라벨 제도(Ecolabel Regulation) 또는 유럽 사회적기업기금(European Social Entrepreneurship Funds)의 사례를 참고하도록 권고함.

■ 금융·투자 활동의 성과 판단기준이 되는 벤치마크(benchmark)가 대부분 지속가능성 성과를 평가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벤치마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지속가능성 벤치마크 기준을 개발하는 활동을 추진 중임.[18]

18) European Commission(2018),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ropean Council, the Council, the European Central Bank,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Action Plan: Financing Sustainable Growth. COM/2018/097 final.

- 2018년 5월, EU 집행위원회는 2016년 채택된 벤치마크 제도에 저탄소 벤치마크와 긍정탄소영향(positive carbon impact) 벤치마크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
- EC의 행동계획 이행을 위해 구성된 기술전문가 그룹(Technical Expert Group)은 저탄소 벤치마크와 긍정탄소영향 벤치마크 방법론의 최소요건(standards)과 ESG 벤치마크 공시의 최소 공개정보 기준 설정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2019년 6월 이를 공개하여 위임법률(delegated acts) 구성 예정임.[19]

■ EU의 인프라 투자 활동에서 지속가능한 사업 투자를 확대하여 지속가능 인프라 시장의 성숙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또한 제시

- 유럽전략투자기금(EFSI)과 유럽투자자문허브(EIAH) 등, EU의 금융수단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인프라에 EU의 재원을 집중함으로써 민간의 참여 유도[20]
- EFSI는 유럽 전역에서 민간을 포함하여 약 2,650억 유로의 총투자를 조성하여 2020년까지 활동이 연장됨. 2기 활동에는 최소 40%의 재원을 기후변화 대응 활동에 제공하여 지속가능성 추구에 보다 힘쓸 예정이며, EIAH 또한 기후·환경·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활동에 자문을 확대

■ EU의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II와 IDD)을 개정하여 투자사와 보험사의 금융자문 제공 단계에서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함.

- EU의 금융상품 관련 지침은 투자사와 보험사가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고 이에 부합하는 금융상품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2차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II), 보험상품판매지침(IDD)과 같은 EU의 금융상품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투자사와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속가능성(환경·사회·거버넌스) 요인에 대한 선호도를 묻고 이에 맞추어 금융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개정[21]

나. 금융 리스크 관리 개선 활동

■ EU는 환경·사회 관련 리스크가 장기적으로 유럽 경제와 금융제도에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환경·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금융시장 제도를 구축하여 금융 리스크 관리를 개선하고자 함(표 4).

- 기후 관련 자연재해의 증가로 보험사는 보다 많은 보험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으며, 은행의 경우 기후변화 또는 지나친 천연자원 의존으로 인한 수익감소로 기대보다 낮은 수익을 올리게 될 수도 있음.[22]

19) Technica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2018), *Technica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 Subgroup: Benchmarks Progress Report*.
20) European Commission(2018),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ropean Council, the Council, the European Central Bank,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Action Plan: Financing Sustainable Growth," COM/2018/097 final.
21) *Ibid.*
22) *Ibid.*

ㅇ 2000년 대비 2016년 세계 기후재해는 46% 증가하였으며, 2007년과 2016년 사이 전 세계에서 발생한 극한 기후현상 피해는 86% 증가(2016년 피해액 1,170억 유로)

- 열악한 근로환경, 불평등의 확대 등 사회적인 요인 또한 금융기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예컨대 국제 노동기준을 따르지 않는 기업은 사법비용 또는 평판의 악화로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된다고 언급함.

표 4. 지속가능성 금융 리스크 관리 활동

행동계획 #	활동 내용
6	시장조사와 신용평가 시 지속가능성 고려
7	기관투자자와 자산운용사 의무 규정에 지속가능성 포함
8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기준에 지속가능성 고려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8),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ropean Council, the Council, the European Central Bank,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Action Plan: Financing Sustainable Growth."

■ 금융 리스크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첫 번째 활동으로 EU는 시장조사 및 평가에 지속가능성 요소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최근 시장 분석가와 지속가능성 등급 평가(rating)기관을 중심으로 기업의 ESG 성과와 지속가능성 관련 리스크 관리 역량을 분석하는 움직임이 증가 추세이나, 통일된 시장기준과 방법론의 투명성 부재가 제약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신용평가 또한 금융시장의 원활한 기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성 요인 포함 여부에 대해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에 신용평가 기구가 장기 리스크와 지속가능성을 신용평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신용평가에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신용평가 기구 구축을 검토하도록 함.[23]

■ 두 번째로 기관투자자와 자산운용사의 의무 규정에 지속가능성을 포함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검토 개시

- 기관투자자와 자산운용사는 고객의 이익을 최선위에 두는 이른바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가지고 있는데, EU는 기관투자자와 자산운용사의 투자 의사결정에서 지속가능성과 리스크 고려가 명확하지 않거나 분야별로 일관적이지 않음을 지적
- 기관투자자와 자산운용사가 지속가능성 요소를 리스크 산정에 체계적으로 고려하고 투자 의사결정에서 지속가능성 요소를 고려하는 방안을 고객에게 공개하는 지속가능의무를 수행하도록 제도 개선 검토[24]
- 기관투자자와 자산운용사의 지속가능성 정보 제공 미흡은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과 동시에 기타 투자자들에게도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리스크를 간과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23) *Ibid.*
24) *Ibid.*

■ 마지막으로 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기준(prudential requirements)에 지속가능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은행, 보험사, 연기금 등은 유럽 내 투자금 조성, 즉 자금 공급에 큰 역할을 담당하며 지속가능한 경제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
- 동시에 이러한 금융기관은 기후변화 등의 지속가능성 관련 리스크로 인한 재무건전성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25)]
- 현행 EU 금융건전성 체계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후·환경 요소를 건전성 감독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EU의 지속가능성 개념 정의·분류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은행과 보험사 등이 보유한 자산의 지속가능성 리스크를 반영할 수 있는 자본규제(more appropriate capital requirements) 도입을 검토할 예정[26)]
- 특히 2017년 바젤 제언(Basel Recommendation) 결과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유럽은행의 대출, 투자 등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

다. 시장 관행 개선 활동

■ 마지막으로 EU는 시장 관행을 개선, 즉 기업에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요구하여 기업 공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본시장·투자에 장기적인 시각을 제고하여 지속가능금융을 확대하고자 함(표 5).

표 5. 시장 관행 개선 활동

행동계획 #	활동 내용
9	ESG 정보 공시 및 회계규정 개선*
10	지배구조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여 금융시장의 단기성과 선호 경향 지양

주: * 2018년 5월 유럽위원회의 입법 제안, 2019년 5월 유럽의회의 승인 완료, 2019년 8월 현재 유럽이사회의 논의 진행 중.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8),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ropean Council, the Council, the European Central Bank,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Action Plan: Financing Sustainable Growth."

■ 투명한 기업정보 공시는 금융시장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투자·자산관리 활동이 지속가능성 리스크를 얼마나 적절히 관리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평가할 수 있게 하며, 기업정보 공시가 투명한 경우에도 장기 리스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해당 기업의 공시는 투자자·자산관리사의 의사결정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27)]

- 지속가능성과 장기적 시각은 호환되는 개념이며, 환경 또는 사회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는 장기적 시각을 요구함.
- 단기 고수익을 추구하는 현재 시장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시장에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동에서 단기성과 우선주의를 타파해야 하며, 공시 투명성 제고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함.

25) European Systemic Risk Board(2016), "Too late, too sudden: Transition to a low-carbon economy and systemic risk."
26) European Commission(2018),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ropean Council, the Council, the European Central Bank,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Action Plan: Financing Sustainable Growth."
27) *Ibid.*

■ 따라서 비재무 정보 공시 및 회계 규정을 강화하여 투자 의사결정에 반드시 필요한 지속가능성 정보를 표준화하고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개선하고자 함.

- EU의 비재무정보 공시 지침(Directive on the disclosure of Non-Financial Information)에 따라 2018년부터 500인 이상의 기업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정보와 ESG 리스크 대응방안을 공시하고 있으나, 이 지침은 지나친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보완하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특히 금융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는 자산투자사와 기관투자자가 지속가능성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포함하므로 투명성을 제고하는 이점 또한 있음.[28)]
- 현행 회계규정이 지속가능금융 추구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유럽의회의 우려를 고려하여, EU 집행위원회는 장기 투자에 보다 우호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동적인 회계규정(IFRS 9) 적용 제안

■ 금융시장의 단기성과 선호 성향을 지양하고 장기 투자에 보다 많은 재원을 유도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기업의 지배구조 전략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시정방안 마련 예정

- 지배구조는 기업의 전략기술 개발과 비즈니스모델 강화 등을 가져옴으로서 보다 지속가능한 경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리스크 관리에 보다 적절히 대응하여 일자리와 혁신 창출에도 긍정적인 역할 수행 가능

4. 평가 및 시사점

■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금융 활동 추진 필요성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식이 제고되고 있으며, 금융권을 포함하는 기업 활동 전반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지속가능금융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을 전망

- 국제사회에서는 기후변화를 포함하는 환경 리스크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금융·투자 등의 경제 활동에 환경 리스크를 비롯한 지속가능성 요인, 즉 ESG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화되고 있음.
- 세계경제포럼에서 공개된 2019년 글로벌리스크보고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환경 리스크를 가장 중요한 세계경제의 위협 요인으로 꼽았는데,[29)] 발생 가능성과 파급효과가 가장 높은 3개 리스크로 극한 기후현상, 기후변화 대응 실패, 자연재해를 제시
- 2018년 18개 중앙은행 및 감독기관이 발행한 보고서 또한 기후 리스크와 금융의 밀접성을 확인하고 금융감독기관이 이에 대응해야 함을 강조하였음.
- 2018년 10월에는 영국 중앙은행이 금융권의 성과평가에 기후변화 대응을 고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30)]

28) *Ibid.*
29) World Economic Forum(2019), *Global Risks Report 2019*.
30) *Financial Times*(2018), "Bank of England tells institutions to prepare for climate change." (October 14)

■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전 세계 정부 및 민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야 하는 개발의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정부 이외의 이해당사자 인식 및 참여가 미흡한 실정임.

- 2016년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나, 이는 이행계획의 성격으로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재원의 조성방안 또는 SDGs 달성을 위한 기업의 역할은 다루어지지 않음.[31]
- 경제개발 활동의 큰 축을 차지하는 금융·투자 분야에서의 지속가능성 추구 또한 아직 논의 개시 단계 수준
  - ㅇ 우리나라 최대의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총 운영자산 약 636조 원)이 2018년부터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를 도입하여 기업의 ESG 정보 공시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행 수준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관찰됨.[32]
  - ㅇ 기업의 가치평가에서 환경·사회·기업 지배구조 요소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ESG 투자는 2017년 이후 활발해지는 추세이며, 향후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아직까지는 국제사회의 성장세(최근 3년 연평균 15% 증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33]

- 환경·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금융·투자 활동 촉진을 위한 기반환경 및 제도 마련 또한 미흡한 실정으로, 금융위원회가 2019년부터 대형 상장사에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기업의 이행은 낮은 수준[34]
  - ㅇ 기업의 지배구조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환경·사회 활동 추구에 영향을 미치므로 장기적으로는 ESG 전반에 대한 개선이 기대되나, 금융감독원의 최근(2019년 2월) 지배구조 공시 점검에 따르면 공시 대상 125개 사 대부분이 미흡한 수준의 지배구조 정보를 공시하고 있는 실정[35]
  - ㅇ 지배구조 내부 규범과 연차보고서 공시 점검 결과, 절반이 넘는 기업이 대부분의 항목에서 부실한 정보를 공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28개 점검 항목 중 미흡 항목이 13개 이상인 기업이 12개에 달함.

- 우리나라는 2013년 수출입은행이 아시아 최초로 녹색채권을 발행한 경험이 있으나 아직까지 녹색채권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검증을 위한 평가기관 또한 부재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 환경 마련에는 다소 개선의 여지가 있음.[36]

■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금융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한 금융·투자 기반환경을 구축하고 금융리스크 관리와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가능 금융 정책을 마련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활동 추진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국제기구와 대규모 기관투자자·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경제발전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37];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고려하여 기업은 지속가능한 투자·사업 활동을 추구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수익 극대화 가능

31) 관계부처 합동(2016),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 ~2035)」.
32) 『매일경제』(2018. 10. 22),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3개월…기업 77%는 `나 몰라라`」(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8/10/656290/, 검색일: 2019. 6. 19).
33) 이은재, 이혁균(2019), 「최근 글로벌 ESG펀드 주요 이슈」, Issue Analysis 2019. 3. 8, 국제금융센터.
3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8. 12. 19), 「내년부터 대형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핵심정보를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합니다」.
35)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9. 2. 8), 「금융회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연차보고서 공시 점검결과」.
36) 정영식 외(2018), 『ABMI 로드맵 개편을 위한 신규 중장기과제 발굴 및 추진전략』, pp. 57~59.
37)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BlackRock은 'ESG로 대표되는 지속가능금융 활동이 기업의 장기 성장과 밀접'하다고 주장하며, 자사의 활동에 지속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임을 공개한 바 있으며, 유엔 환경계획(UNEP)은 2014년부터 UNEP Inquiry'라는 이니셔티브를 추진하여 G20, 세계은행, OECD 등과 협력하며,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패러다임 구축 중임.

ㅇ 전 세계적으로 책임투자가 확대되는 추세임을 고려하면, 국내 기업들의 ESG 요소 제고는 새로운 투자자를 유인하는 효과 또한 창출할 수 있음.[38]

- 본고에서 검토한 EU의 사례와 같이 선진국의 지속가능금융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적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이 필요함.

ㅇ 유럽과 미국 등 지속가능금융 제도 적용 지역에서 경제 활동을 추진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정부 또는 투자자의 ESG 정보 공시 요구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ㅇ 우리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경제활동 변화에 적절한 정책 신호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또한 장기적으로는 민간의 지속가능발전 참여를 장려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EU의 사례처럼 제도적 환경 마련과 리스크 대응, 투명성 제고의 모든 측면에서 이행 가능한 정책방안을 모색하여 지속가능금융 상품·활동의 수요·공급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우리 정부와 기업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속가능금융 제도를 확대하고 지속가능발전 추구에 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KIEP

38) 더벨(2018. 9. 20), 「스튜어드십 코드, 자본시장 개혁 '도어 오프너」,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809200100034490002128&lcode=00(검색일:2019. 5. 28).

참고문헌

[국문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6.「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 ~2035)」.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9.「금융회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연차보고서 공시 점검결과」. (2월 8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8.「내년부터 대형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핵심정보를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합니다」. (12월 19일)
더벨. 2018.「스튜어드십 코드, 자본시장 개혁 도어 오프너」. (9월 20일).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 iew.asp?key=20180920010003449000212 8&lcode=00(검색일: 2019. 5. 28).
『매일경제』. 2018. 10. 22.「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3개월…기업 77%는 '나 몰라라'」. (10월 22일). https://www.mk.co.kr/news/ business/view/2018/10/656290/(검색일: 2019. 6. 19).
이은재, 이혁균. 2019.「최근 글로벌 ESG펀드 주요 이슈」. Issue Analysis 2019. 3. 8. 국제금융센터.
이재훈. 2017.『EU의 입법절차와 현황』. 한국법제연구원.
정영식 외. 2018.『ABMI 로드맵 개편을 위한 신규 중장기과제 발굴 및 추진전략』.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보고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8.『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해』.

[영문자료]

EC Sustainable finance 웹사이트. https://ec.europa.eu/info/business-economy-euro/banking-and-finance/sustainable -finance_en(검색일: 2019. 6. 2).
EU High-Leve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 2018. Financing a Sustainable European Economy. Final Report 2018 by the High-Leve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
European Commission. 2008. "Consolidated Versions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2008/C 115/01)."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Vol. 55. (26 October)
_____. 2016.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Next steps for a sustainable European future European action for sustainability."
_____. 2018.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ropean Council, the Council, the European Central Bank,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Action Plan: Financing Sustainable Growth."
_____. 2018.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Establishment of a Framework to Facilitate Sustainable Investment." 2018/0178(COD).
_____. 2018.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Regulation(EU) 2016/1011 on Low Carbon Benchmarks and Positive Carbon Impact Benchmarks." 2018/0180(COD).
_____. 2018.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Disclosures Relating to Sustainable Investments and Sustainability Risks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6/2341." 2018/0179(COD).

_____. 2019. "Press Release. Capital Markets Union: Commission welcomes agreement on sustainable investment disclosure rules. Brussels." (7 March).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9-1571_en.htm. (검색일: 2019. 6. 13).

European Systemic Risk Board. 2016. "Too late, too sudden: Transition to a low-carbon economy and systemic risk."

Financial Times. 2018. "Bank of England tells institutions to prepare for climate change." (October 14)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2018. *Breaking Through – IIRC Report 2017*.

Jean-Claude Juncker. 2014. "A New Start for Europe: My Agenda for Jobs, Growth, Fairness and Democratic Change - Political Guidelines for the next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commission/sites/beta-political/files/juncker-political-guidelines-speech_en.pdf(검색일: 2019. 5. 7).

MSCI. 2019. "ESG Trends to Watch in 2019."

NGFS. 2018. *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NGFS) First Progress Report*.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2018. "Strategic Plan Fiscal Years 2018-2022 – Draft for Comments."

Solomon, Jill. and Warren Maroun. 2012. *Integrated Reporting: The Influence of King III on Social, Ethical and Environmental Reporting*.

Technica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 2018. *Technica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 Subgroup: Benchmarks Progress Report*.

Think Advisors Inc. https://www.thinkadvisor.com/2016/11/08/investing-in-esg-sri-or-impact-funds-do-you-know-t/?slreturn=20190016025813(검색일: 2019. 4. 20).

UN 웹사이트. https://www.un.org/millenniumgoals/,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sdgs(검색일: 2019. 6. 3).

World Economic Forum. 2019. *Global Risks Report 2019*.